

유한킴벌리, 특허침해 공방 판정승

유한킴벌리와 쌍용제지가 종이기저귀 특허침해여부를 둘러싸고 8년간 벌여온 법정공방 1심에서 유한킴벌리의 승소가 결정됐다.

지난달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3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하기스' 기저귀를 생산하는 유한킴벌리가 '큐티'의 쌍용제지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고, 피고인 쌍용제지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45억



◀ 지난 8년간 법정 공방의 주인공인 플랩이 달린 기저귀. 사진은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우리측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저귀 안쪽 샘의 방지용 날개(플랩)부문에 재산권 침해사실을 재판부가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95년 쌍용제지측이 '울트라큐티파워슬립' 등 플랩이 달린 기저귀를 생산하자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이듬해 3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한편 쌍용측은 변호인을 통해 '이번 사건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미국 판례를 감안해 볼 때 이번 판결은 예상 밖'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해 본 뒤 조만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14일에는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4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에 유한킴벌리가 '본사의 기저귀 관련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LG생활건강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내고 승소했다. 법원은 'LG측은 '마망홀트리슬립' 등 기저귀 생산을 중단하고 원고측에 591여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한번 유한킴벌리의 손을 들어 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한이 특허를 가진 기저귀 안쪽 샘 방지용 날개가 달린 기저귀를 LG측이 제조, 판매해 유한측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LG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원증권, 투자시스템 특허 획득

동원증권은 지난달 13일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시스템인 '투자메디컬 네트워크'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투자메디컬 네트워크는 고객의 실제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매매성향 및 투자성과, 위험요인을 분석해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종합자산 관리 서비스이다.

동원증권 관계자는 '타사의 자산관리 프로그램이 분석 및 처방에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되는데 반해 '투자 메디컬 네트워크'는 시장분석<→계좌분석<→종목분석<→처방전까지 모든 과정이 시스템화 돼 있어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동원증권 홈페이지(www.choiceup.com)의 투자메디컬 코너 또는 전지점에서 담당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전일을 기준으로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매매성향 진단, 성과 평가분석 및 투자전략 제시 등의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 회사는 투자메디컬 이외에 앞으로 간접거래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한 '펀드솔로몬프로', 맞춤형 거래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한 '에셋피아(Assetopia)' 등 3개 부문을 시스템화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흘려쓴 등록상표, 다른 상표와 유사하면 사용 못한다

상표가 서로 다르더라도 흘려쓴 변형상표의 모양이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다면 이 변형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주)밀리오레는 95년부터 MIGLIORE 글자를 흘려쓴 상표를 포장용 비닐봉투와 카탈로그 등에 사용해오고 있는데, 2001년 8월 MIGLSAMO 상표를 취득한 이모씨가 포장용 비닐봉투에 흘려쓴 MIGLSAMO(밀사모) 상표를 이용하자 상표사용금지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주)밀리오레가 '밀레오레(MIGLIORE)' 상표와 비슷한 '밀사모(MIGLSAMO)' 상표의 사용을 중지해달라며 밀리오레 동대문점에 세 들어 영업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유사상표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원고신청 기각을 판정한 1심을 깨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다면 변형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IGLIORE와 MIGLSAMO는 서로 다른 상표이므로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MIGLIORE와 MIGLSAMO를 흘림체로 썼을 때 그 모양이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이씨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흘림체로 된 MIGLIORE 상표를 모방하여 소비자들을 혼동케한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지난 95년부터 (주)밀리오레가 사용해 온 MIGLIORE 글자를 흘려쓴 상표.

Health News

오십견, 이제 물렀거라!

50대에 흔히 찾아와 이름 붙여진 '오십견(肩)'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나 과로,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어깨결림이나 통증으로 30, 40대에도 늘어가고 있다.

오십견은 근육 및 뼈가 퇴행하면서 어깨 주위에 통증과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증상으로는 주로 팔을 옆으로 옮기거나 뒤로 젓힐 때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나타내며 심한 경우에는 옷을 입거나 벗지 못하는 수도 있다.

◎ 치료방법

오십견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운동요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오십견의 약물치료는 어깨 관절에 혈액 순환을 돋는 처방이 사용되며, 침구치료와 물리치료도 효과가 있다.

운동요법으로는 추운동이 있는데, 5킬로그램 정도되

는 아령을 들고 팔을 들어올린 후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러운 속도로 흔들어 주는 것이 좋다. 어깨에 힘을 주어 일부러 흔들거나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올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는 것이 좋다. 추운동으로 상태가 좀 나아지면 그 다음엔 손가락 운동과 팔 휘두르기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손가락 운동은 엄지를 1번으로 보고 차례로 번호를 매겨 생각한다면 2번과 3번 손가락 그러니까 검지와 중지를 벽에다 나란히 대고 손가락 결음을 견듯이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팔을 앞뒤로 흔들어주는 운동을 하는데, 이것 역시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오십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4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양팔 휘두르기 같은 맨손체조를 매일 하는 것이 좋다.

담배, 끊을 수 있다

한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한 재수생들임을 잊지 말자.

● 금연을 위한 환경조성을 하자.

담배를 생각나게 하는 물건, 즉 재떨이, 담배, 라이터 등은 버리는 것이 좋다. 술자리나 많은 이들과의 만남을 갖는 자리에서는 담배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금연 후 2~3주간은 회식이나 모임 자리에 피하는 것이 좋다.

● 금단증상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자.

담배를 끊은 후 나타나는 불안, 초조, 집중력 장애, 불면 등의 증상을 금단현상이라 일컫는다. 금단증상은 금연 후 3~4일에 가장 심해지고 2~3주 후면 없어지므로 이 기간 동안 이런 증상을 잘 조절하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은단 씹기, 무가당 껌 씹기, 찬 물 마시기, 양치질 등도 도움이 된다. 다만 칼로리가 많은 음식은 비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성공적인 금연의 4가지 수칙

● 결심을 굳게 하고 금연일을 정하자.

흡연은 중독성이기는 하지만 굳은 결심만 있으면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성이 높다. 결심을 하면 즉시 '금연일'을 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담배를 끊는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자.

담배를 끊는데는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금연에 실패하면 창피할까봐 주위에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잘못이다.

한번에 담배를 끊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금연에 성공